

한국의 독립을 환영하면서 「국민은
필립핀의 오루대신 메라니氏
를 정지회의에서 상설치 말라
고도한 정지회의는 아세시의 다
른 나 라들의 안전을 무시하면
아니 된다」고 경고했다.

여 적색의 마수가 배쳐나오
게 되었더라도 우리민족은
우리끼리 살아가겠다는 정신
이 보다 더 철저하였으면 모
든 것을 이기고 통일국가를
세울수 있었을는지도 모르겠
을 것으로도 그항상이 많을것은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八一五 해방
기념을 당하여 또 우리의
의사에 없는 휴전을 하게된
오늘날에 있어서 과거를 회
상하고 앞날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많은 잘못과 책임을
느끼는 동시에 약소민족인
우리로서 거의 불가능적인
불리한 정세를 생각하고 세
계에 정의가 없는것을 통감
하는 동시에 오직 하남의

협의 결과로 우리가 얻는바는 세가지로 볼수있다. 한, 김일성파의정권이 한국을 통일하려는것이 실현된것이다. 그는 이것이 공산주의 목적이었기때문에 그들이 근본적 목적에 있어서 실현한것이라고 할수있다.

休戰과그意義

二、세계 공산정권은 이번의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의 자유정권은 공산주의를 막기위하여 단결이 되었다는것과 세 가지 면에서나 공산정권을 막는 사명을 구하기위하여 싸울것이라고 하는것을 배웠다. 三、한국은 미나간 고립을 면

하여 침략자를 대항하여 또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므로 한국정부와 국민과 국군은 전 세계 자유국민의 동정과 존경과 도의적 원조를 받게되었다. 四、북한파의정권은 세계 자유국민의 비난을 받게되었고 사

五、한국사람은 정신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강해진것으로 앞으로 안으로 밖으로나 공산침략을 방어할만한 힘이 전보다 훨씬 강력해졌다. 六、전세계 자유정권 국가들은 한국의 재건과 부흥을 위한 원조가 얼마나 절박하게 요구되는가 함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은 연합국이 처음으로 공산침략을 대항하여 싸우게 된 전장이 되었다는것도 알게되었다. 그러므로 세계 자유국가에서는 한국의 경제를 부흥할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 이미 전화를 입어서 파괴되고 황폐된것을 재건하기 위하여 물질적의 원조비 예산의 계획이 세워되었다. 열대 스코트장관은 이미 유엔각국에

政治會議ニ韓國問題만局限할것을要請

捕虜交換을監視 한국정부는 휴전회담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포로교환이 실시될때에는 任正준국장을 六명의 韓國측 대표를 파견하리라한다.

을無視말라外相의警告

樞東問題解決은尙遠 台北發의국통신에 의하면 중국측은 한국휴전이 성립되었 다 할지라도 극동문제에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 하였다. 하 더 이것은 중국측의 일치한 의견 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韓國과韓國國民態度를支持基督敎極東評議會決議

대중의 손이 힘있게 지배하 는 날에야 마치 八년전에 못하지아니한 해방을 마지한 것처럼 통일조국을 볼것을 믿게 된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영두 에 한국의 통일과 독립밖에 아모것도 개리는것도 겁낼것 도 없이 八十호로 온세계 를 상대로 싸와가는 우리의 영도자가 있는것을 감사하며 그 건강을 빌기를 마지아니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 으로도 그와같은 애국적 영 도자를 주실것을 믿고 국민 전체가 하나앞에 하나이되 어 조국 통일을 위하여 싸 우기를 바라는다바이다.

太평양 연안十二개국의 대표로서 구성된 그리스도교회 국 동양의회에서는 한국휴전을 깊이 우려하고 이승만대통령의 휴전반대 태도를 지지하는 결 의문을 제결 발표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북한을 해방하지 않 고 휴전에 조인한것을 대단 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로써 침략자는 용화를 받았다 세계는 이것을 평화라고 보 면 안된다. 한국은 배약을 당하였고 자유세계의 사기는 중절 되었다 세계기독교도들은 이로 말미암아 북한 그 리스도교회는 일층 박해를

받을 것이고 북을 전할 길 은 막혔고 남한교회에 대한 위험은 더하여졌다. 이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각국 정치 가는 하나같이 만백성의 조 정치자라는것 무신론적 공산 주의와의 타협이 인간의 자 유에 대한 큰 고통을 가져 온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 다. 우리는 이승만대통령과 한국국민이 정의와 자유를 지키는 용감성을 이해한다. 우리는 각국에 산재한 형제 들을 향하여 한국전도의 구 제와 통일을 기도하기를 호 소한다.



대하여 파괴된 한국의 부흥과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전쟁을 싸야 할 온갖 불자들을 동원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는 이러한것을 마땅히 두고 우리 조국의 재건을 위하여 각각 헌신을 할것이요 공산역도가 다시 우리국토안에 서 그 가증한 머리를 들려는 모든 용계를 막기위하여 최선 을 다할것이다. (J. B. S.)

○최근 미국에서 돌아오신 한경직 목사의 말을 들으면 미국에서는 휴전을 찬성하는 사람이 많지마는 공산군을 그냥 한국땅에 두고 휴전을 하는것 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그 동안 수많은 청년이 홀리 피는 헛된대 돌아갔다고 하고 정부에 하는 처사를 대반대하 고 크게 비난하는 사람도 많 이 있고 한편으로 우리 이대통령의 인기는 대단하다고 한 다 이제 만일 세계 영웅 투 표를 한다면 자기네는 단연 이승만대통령에게 투표할 한 다 야단이라고 한다. ○이런것을 보면 아직 세상 에는 정의감이 살았다 할수 있다 일본정치가들도 이대통령 을 은근히 쳐다보고 미워하기 까지 하는 모양인데 그들에게 는 미심과 감정이 있기때문이 허기는 미국친구들도 우리 들 무엇보다도 알고 우리대통령 을 어떻게 보았다가 하는 수 자를인지 모르지 이제와서 영웅 이니 무어니 하는것은 웃음지 아니하냐. ○우리 대통령은 연세는 八十이 가까워지마는 그 철석같은 기개는 과연 누가 감히 어찌할수 없으리만큼 위대한데 가 있다 우리가 믿기에 그 에는 분명히 위신론이나 아부 라함리전같은 높고같은 신앙이 있는줄 안다 하나남밖에 무서운것이 없고 오직 정의의 위 해서는 끝까지 싸워나갈 승고 한 정신이 있는줄 믿는다.

基督教勞働者の要求 武裝防備보다社會改善

國際基督教勞連氏言明

주제버에서 〇〇 통신은 국제 기독교 노동조합 사무총장 오거스트 버·워스워스씨는 유엔 국제노동기구에서 「민주주의적인 인민들은 군비강화보다 대안하고 보편적인 사회개선」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요지 다음과 같은 강연을 하였다.

국제노동기구 보고에 의하면 유엔과 아메리카의 군사비는 세계 미개척지 개발 자금의 약 십배나 된다 나는 이 문제를 각국 양심가들께 호소한다 「건설한 사회발전은 군비(軍備)보다 중대한 방비가 되는 것인즉 오늘날의 비상사태에 실망하는 인류를 사회개선으로 구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氏は 전에도 국제기독교 노동조합연맹에서 「단결된 자유」라는 주제로 기독교 노동조합 운동기원을 강조한 바 있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기독교 노동조합 운동자들은 노동자의 평등과 공정한 이권을 가지고 단결하여야 하고 공정한 기원후에서 보다 더 고상한 목적을 위한 선

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계각국에서 이것이 승인되지 못하고 있다 유엔은 이 목적 실현에 노력한다 또 경영참가(經營參加) 문제

에 있어서도 氏は 「기독교 노동조합연맹은 노동자의 경영참가 제도를 요구한다 이 제도로 기업에 대소를 막론하고 고용노동자도 기업체의 정책과 행정경영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하여 인도적 입장에서 경제 활동 발전에 기여하는바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생산능률을 증강케하며 직장분위기를 융화하여 인도적인 공동체의 기반을 세우게 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이런 일을 면려청년 연합수양회는 앞으로 한주간도 남지 아니하였는데 이제야 푸르고 밝은 내어놓게 된 것은 회원 여러분께 미안합니다 더 일찍이 초안이라 내어 놓고 비판을 받아가 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모으고 싶었으나 우리의 현재의 사정 은 거기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다행이도 지난 봄에 각지 방 안으로 열람한 연정집회시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었으며 이 이번 연합 수양회 준비에 힘입어 도음이 되었으며 청년회 책임자이신 김목사의 지방순회 가 우리를 대신하여 각지에서 여러분과의 건교를 할 기회가 되었고 이 순서작성과 준비에 도음이 되었을니다.

그러나 각지의 뜻에 만족하거부하는 경향이 많이 보임은 유감이다 기독교 노동자들은 이 목적을 위하여 금후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하였다.

기 는 오히려 거리가 멀으리라 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읍니다 이제 푸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참석하실 이들에게 예비를 구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主眼가 「그리스도青年의 당면한 課題」라 한 것은 광대한 감도 없지않으나 그리스도신앙하는 어느 누구나 당하고 있는 고인이요 부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에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세계적인 면에서 살펴보고서 세계교회문제 의 연구가인 魚木박사를 초청하기로 하였을니다.

물론로 세가지 小題를 든것 은 우리나라 교회와 사회와

勉責

失地回復의第一條件은 憎惡와報復心拋棄

독일 팟소에서 전하는 소식

에 의하면 東부독일에서 피난한 천주교인들 회합에서 배타 편협심부는 「중오와 복수심을 버리라 그 마음을 품지 않음

이 설치회복(失地回復)사업의 첫째 조건이다 물론 東부독일의 失地회복은 정치적인 문제 이기는 하나 특히 종교적으로 융화통일하는 노력을 잊어서는

아니된다」고 역설하는데 氏의 말에 의하면 피난민의 실정에는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부에서 당한 일들에 대한 원한과 증오가 불타고 있다 「기독교는 독일사람과 슬라 부족속을 연결 시키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할것이라 하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과 손을 잡을 것이며 캐톨릭 신도는 개톨릭신도와 손을 잡을것이다」 하면서 東西독일의 길을 가르쳤다 한다.

祖國愛의實踐을

在日 信使를지

우리조국의 현상과 左外동포들을 생각할 때 옛날 바깥노예 회파되었던 이스라엘과 헤미야의 관계가 연상된다. 헤미야 정전된다는 소문을 듣고 유하 조국 소식에 감격한 바가 있는대로 아라 헤미야記를 통하여 말문을 드러내 하는 것이

나 祖國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술어하며나날 앞을 기도 하였다」 하니 헤미야의 애국심이 어찌하였던 것을 우리는 배울수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번 전란에 파피된 고국 소식을 듣고 다만 눈물 흘리고 탄식할 뿐만 아니라 신앙심으로 하나노 앞에

사람이 었던 사실을 볼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이런 정신의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다. 마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야곱과 요한을 하 나는 주의 우편에 앉히고 하 나는 주의 좌정승이 되게하여 달라고 하던 것과 같이 서로 높인 자리의 감투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 나 예수께서 「인자는 성김을 받으려 온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노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였다. 여러분은 이런 정신으로 이 나라에 산재한 포도밭 건지는일 전신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 그 일은 즉 파피된조국 재건에 섬기는 긴요한일이 줄로 안다. 그 일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 일 이 조국에 올바른 일임을 세우는 근본적인 일이다 우리 민족이 예수를 바로 믿는때에 국가가 흥왕할것이고 발전 용성할것인즉 지금은 주의 복음을 전할 때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에 피로도 있을줄로 아나 이 일이 제일 귀한일 인줄 알고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헤미야」 바깥노예 잡혀간 포로의 한사람으로 彌沙王 아라사스의 舍(潘線) 말은 사람이 었었다 「파피된 故國소식을 듣고 있어서 울고 수일간 울고 하였다」 한다 그 개인

그 기회를 얻어 최선을 다한

「헤미야는 자기의 영달(榮達)을 바라지 아니하고 자기동족을 건지는 일에 전력을 다

一九五三年七月二十六日 (主日) 在日 東京禮拜堂에서

과거의 교회청년들의 헌정들은
살피어 전함을 삼을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올바른 생각 하여
아함 문제가 있는대로 알고
삼일강에 그 개략을 되돌고
문제를 이르러 한 것임이다
우리는 문제 없이 모이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모여서 토의한

修養會 平和統一

어노 으 면 서
우리는 발전적인 문제를 가지
고 각자의 일터에 도라 와야
할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일시
적인 감정이 아니고 그리스도
를 신앙하는 청년들의 영원한
생각을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이밖에 그런 태도만이
라도 문제를 세우려 했을다
한 문제를 제출하는 세사람도

共産治下教會의忍耐 平和統一에 最善의努力

東獨政府와 福音教會
東獨독일 정부는 최근에 북
부교회 지도자 4명에 유교
부스트감독 한 감독 임명하
고 감독 밑에 감독 세명감독
을 청하고 정부측의 고령총
과 및 수크부총리 차이철국방
장이 출석하여 교회문제에 관
한 협의의 목적을 발표하였다
협의의 목적은 독일민주공
화국 내의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재검토 하기 위한 것
에 있었다 협의는 상호 이해
에서 진행되어 국가와 교회
의 정상관계를 재건함에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 일차로는
것은 오늘날 독일국민 전체의
희망하는 국가통일과 평화 상
립에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실은 국적 재가하는 점에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 대표
자들은 동독독일 헌법이 용서
하는 범위에서 교회의 자유를
증거 하라 할것을 인정하고 교
회측 대표들은 경제적 정치적
방해나 반헌법적 행위는 삼가
기보함의조약을 체결 하였다.
교회청년회와 교회기관에 대
한 제약을 금후 재의할것
교회청년회원이었기 때문에

첫째는 남북과 성경연구 시
간을 둔것은 주제를 같은 「그
리스도青年의 영원한 과제」를
성경에서 해답을 얻도록 하여
보려 한 것임이다 물론 주관
적인 연구가 되어서는 아니되
어야 하겠지만 동일 강사들은
세부를 청하였으니 교회문제
사회의문제 신앙은
재를 신학교에
서 전경하신 것
은 학구적인 강
사들이 지니고
있는 신앙의
정신은 이 성경
공부에 있을
것임이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남의 말을 바루
게는 아니요
문제를 해결이
있다는 사실
을 이밖에
해결하려 함이다
넷째로 그리스도청년의
당면
한 문제를
제출하는 세사람도

현재까지 그 문제와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만
물을 토하는 열정과 그리스도
영애에 순종하는 모습 상국되
은듯하면서 극한의 가시발
을 가는 고인이 화한 동지
들에게 토로할 줄 안다
다섯째 우리는 신앙과 같은
것들을 토로하고 솔직한 태
도로 하나남 앞에 들어 있을
것임이다 그것은 예배시간
이나 이 예배는 전일 제무
이 세분이 지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양회에
참석하시는 동지는 물론이시고
사정으로 참석못하시는 동지들
과 교우 여러분에게서 이 집회
를 위하여 간절하신 기도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비위원)

현제까지 그 문제와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만
물을 토하는 열정과 그리스도
영애에 순종하는 모습 상국되
은듯하면서 극한의 가시발
을 가는 고인이 화한 동지
들에게 토로할 줄 안다
다섯째 우리는 신앙과 같은
것들을 토로하고 솔직한 태
도로 하나남 앞에 들어 있을
것임이다 그것은 예배시간
이나 이 예배는 전일 제무
이 세분이 지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양회에
참석하시는 동지는 물론이시고
사정으로 참석못하시는 동지들
과 교우 여러분에게서 이 집회
를 위하여 간절하신 기도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비위원)

회와의 관계는 종래의 긴장이
완화되어 북독교회에 속한 모
든교회는 요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東獨독일의 교회내외부에는변
화가 생겼다 교회청년단 등
은 무서운 시련과 고난 속
에서 신앙을 지키어 오늘날의
결과를 얻기까지 참어왔다
독일에는 아직도 여러가지
곤란이 있다 구원을 요하는
數百萬의 신도와 투옥된자가
수다하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독
일 실현의 전도는 아직도
멀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차츰
실현하여 주실것을 믿고 금
후도 국민과 교회우에 축복
을 비라마지 않는다」(D.P.S.)

京都教會大修理 五十萬豫算 近近着工

京都교회에서는 五十萬圓
산으로 예배당 수리를 하리
라 한다 현재의 예배당은
전에 세운것인데 현재는 전
정에서 참마면 비가 새기
도 하고 오랜건물이기 때문
에 내부가 어둡침침하기도
하여 九月말에 대수리에 착
수하기로 하고 九月六일
에 특별 헌금할것을 예고하
여 일반신도의 기도와 협력
을 권하고 있다

來道記

(一) 本書의 名稱 이 책은 보통의
로 권위권과 부른다 모세의
五經中에서는 세번째 책이다
히브리말 성경에서는 이 책
첫머리의 한구절을 이 책의
제목으로 삼았다 (즉 여호
와께서 부르신다)는 의미에
서 그 명칭으로 삼은 것이
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것을
「레위사람의 책」이라는 의
미로 쓴것이다. 이것이 라틴
말로 번역될 때와 영어번
역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오
는의 우리말 성경도 레위
라고 부르게 된것이다
二本書의 構成 이 책의 구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
여 볼수있다
一章一七章 레위의 규속
八章一十章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의 제례규례
十一章一十五章 불결한것과
정결례에 관한 규속
十六章 속죄일의 규례
十七章一二十六章 성결법전
二十七章 부속
三本書의 目的 이같이 여러가지
의 내용을 가진 이 책의
배후에는 몇가지 자료(資料)
가 있어서 성립된것이라고
본다
이 책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 자료를 정리 구별하면
이해(一) 理解(二) 대대간
한 점이 있을것이다. 그러나
레위이라는 책 전체의 목적
을 이해하려고 분석만 한
는것은 의미없는 일인즉 이
책의 근본정신은 읽으면 알
수있다. 반갑다 싶이 되어
저 있는 율례규정은 죄 사
함을 받는 길과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된다
그 시대에는 그 규례를
지킴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신앙이 근본원칙 정신으로
되어져 있다는것을 잊어버리
면 아니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구성을 분
석한것을 다시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생각하는것이 더욱
필요한 일이다
(一) 祭事의 율법

(二) 祭司의 율법
이 두가지를 종합하면 죄는
어떻게 사함을 받을수 있
나 하는 점에 목적이 있다
고 보인다 (第一部)
정결과 불결의 법규
거북과 속죄의 법규
아들들 또는 종합적으로 살
피보면 罪라는것은 어떤것이
나 하는것에 관한 점이 있
는것 같다 (第二部)
이렇게 해석하여 보면 이
책의 제一부에는 죄의 처분
이 목적이 되어 있고 제二부
는 죄의 규정문제가 기록 목
적으로 해석된다
四本書의 理解 위에서 이 책
목적 설명을 읽고 전후가
뒤바꾸어진 느낌을 하는 이
가 있을런지 모르나 그런것
은 아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서는 죄가 무엇이나 보람도
어떻게 하느냐에 죄사함을
받을수 있느냐가 최대의 문
제였다. 하나님 편으로
보시는 것도 죄를 어떻게
용서할가 하심이 무엇일지
로 정할가함보다 어떻게 용
서할가하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올바루 이해함에
는 祭事의 율법이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하는 祭司의 율
법이 차례로 뒤따른다
이 같이 죄 사하는 길이
있음은 후에 죄가 무엇이라는
것이 설명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는 용서 받
기전에 있는것이 사실이나
죄가 참 죄였다는것을 알게
되는것은 빛이 비추일때에
어무움을 아는것과 같은 이
치임을 우리들이 용서함을
받은 신앙체험에서 알게되는
것이다
五本書의 精神 이 책은 제사형
식이나 의식에 목적이 아니
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학
정신이 레위기에 숨어져
있음을 알게 되는것이다 예
수그리스도의 십자架上에
전부가 나타나 있다. 허부
인서는 이 사실을 더욱 명
하게 설명한다

이 책은 보통의
로 권위권과 부른다 모세의
五經中에서는 세번째 책이다
히브리말 성경에서는 이 책
첫머리의 한구절을 이 책의
제목으로 삼았다 (즉 여호
와께서 부르신다)는 의미에
서 그 명칭으로 삼은 것이
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것을
「레위사람의 책」이라는 의
미로 쓴것이다. 이것이 라틴
말로 번역될 때와 영어번
역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오
는의 우리말 성경도 레위
라고 부르게 된것이다
二本書의 構成 이 책의 구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
여 볼수있다
一章一七章 레위의 규속
八章一十章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의 제례규례
十一章一十五章 불결한것과
정결례에 관한 규속
十六章 속죄일의 규례
十七章一二十六章 성결법전
二十七章 부속
三本書의 目的 이같이 여러가지
의 내용을 가진 이 책의
배후에는 몇가지 자료(資料)
가 있어서 성립된것이라고
본다
이 책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 자료를 정리 구별하면
이해(一) 理解(二) 대대간
한 점이 있을것이다. 그러나
레위이라는 책 전체의 목적
을 이해하려고 분석만 한
는것은 의미없는 일인즉 이
책의 근본정신은 읽으면 알
수있다. 반갑다 싶이 되어
저 있는 율례규정은 죄 사
함을 받는 길과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된다
그 시대에는 그 규례를
지킴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신앙이 근본원칙 정신으로
되어져 있다는것을 잊어버리
면 아니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구성을 분
석한것을 다시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생각하는것이 더욱
필요한 일이다
(一) 祭事의 율법

北韓에서二年間監禁生活을한

監理敎宣敎師歸國談

六二五사변이 일어나자 곧 북한공산군에게 잡혀가서 고생하던 선교사들이 지난 5월에 석방되어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간 일은 본지에 이미 보도했고 세인이 다 아는 바이지만 그들이 3년만에 처음으로 그 고국땅을 밟는때의 일과 어떨게 감금생활을 하다가 석방되어 돌아온 경로를 대강 소개 하고저 한다.

감리교선교사 五人과 신부 한 사람과 시카고의 실업가 한 사람과 함께 7인이 5월 7일(水) 일(一)에 뉴욕근방「아이들 월드」비행장에 내리자 가족들과 선교부 직원들과 신문기자 방송국원 시공보과원들의 출영을 받은 그들은 비록 여러해동안 무참한 고생을 하였으나 비교적 건강하고 몸으로 마치 개신 장교같은 영웅적 한영리에 무수히 달려드는 기자들의 캐메

라앞에 서고 방송국원의 마이크앞에서 말하며 기자들의 테이프를 받기엔 정신을 못차릴 지경이었으나 쾌활한 웃음으로 낯익은 수용하였었다.

일행의 7명을 적으면 크리스찬(전선목사(박사), 미스 헬렌 로오씨, 미스 엘리자베스, 미스 로버트, 미스 스티븐스, 엘리자베스, 미스 루이스(시카고 실업가) 처음에 감리교선교사들이 잡혀있던 감리교선교사는 부인을 서둘러 두고 개성에 가있었고 풀러목사는 본시 개성에 주재해 있었으나 부인이 서울에 가있었기때문에 그들은 잡히지 않았고다가 그후에 본국으로 철귀해 갔던것이다. 그래서 전선부인과 아들 딸은 비행장에서 출영했으나 풀러부인은 신병으로 못나왔다 미스「로씨」는 동생이 나왔고 미스씨는

그 노모가 출영하였다.

한가지 섬세한 일은 개성 남성병원에서 일하던「키취」의 사는 잡힌지 일년만에 종내영 양을광으로 사망하였다는것이 처음 잠문을 때에는 군대의 포로로 대우하기때문에 학대의 대단하였다고 한다 형이 남지

미스 로우씨가 간호부이

고 키취씨가 의사 이었으나 자신도 병이 났고 또 병을 보아주기를 허락하지하였었다

그리고 음식이 분량으로 보나 질로 보나 형편없이 빈약하였

으나 다행히 직점으로 들어

해할 가하는 일은 없었다 제 일고생하기는 적 추운때에 마친 유엔군이 복진할때에 배여마일을 이동한 때이었다 그 때에 한국시민 몇사람과 한국군인과 미군 수백명이 죽었다 수용소에서 공산주의를 선전하

여 사상을 전향시킬려고 하였으나 하등의 효과가 있을리가

없고 감금한데 한 심심 몸이

밖에 안되었다고 한다 수용소

에서 준 옷은 다 떨어져서

노닥노닥하도록 입다가 벗어놓

고 나을적에는 좀 나은것을 주어서 입고 왔다.

뜻밖에「포린정부의 특별한 호의로」놓아 준다고 하면서 중공군장교들이 석방해주어서

기차를 타고 만주로 해서 메리야로 돌아서 모스크로 갔

다가 모스크에서 비행기를 태

워주어서 비행에서 감리교선교

사를 만나서 많은 도움을 받

았고 거기서 미군부의 앞선으

로 뉴욕까지 오게되었다 그

동안 장거리 여행을 하는동안

은 여행권도 없고 손가방이나

돈 한문도 없이 빈 손으로

같이 오는 격들의 도움을 받

으면서 왔다고 한다.

그들을 출영한 이 가운데

어떤이는 이렇게 감상을 말하

였다「잡혀서 곧 살해될 뻔했

었다」그렇지 않으면 만이

년반이란 오랜 세월이었고

생물하고 학대를 받고 살수가

없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살

아 오는것은「죽음에서 부활한

것이라고 할수있는 이적이오

하나님의 능력이이다」

감리교선교사 네사람은 선교

새 사람

전 영 택

밤은 깊고 고요한데 홀로 앉아서
눈을 감고 묵묵히 생각을 해보니
나라는 사람신세가 가이 없구나
공공이 생각할수록 한심도 할세

몸에 병이나 들어서 죽게 됐다면
용한 의사의 약이나 써서 나을가
또다시 한번 새사람 되어 보려만
속사람이 풀로 병들어 상하였으니!

아버지 귀여워 날 어루 만지시던
그 양자 그자취는 간 곳이 없고요
부끄러운 줄을 알까 염체도 없고
추하고 더러운 생각 마음에 가득

거짓과 욕심허황한 꿈만 밤마다
허영과 방탕 못할것 없이 해보고
걸음으로 가장 사람인양 꾸며보아도
속으로 역적 강도같은 그심사라고

입에 담을수도 없는 더러운 말도
악담 비방등 난죽년죽 토해버리니
내 속은 만산창 써어 넘새 나건만
그래도 표만과 혈기는 대단도할세

만사에 깨끗이 바르게는 못하고
어물 어물 속이고 꾸며 살았고
목전의 일 찰라의 낙을 따를뿐
정의와 진리의 세계는 꿈도 못꾸었네

오! 암흑 세계에 광명이 비치고
문명 천지에 한줄기희망이 보이네
죄인도 회개하야 새사람 되나니
옛사람 변하야 새사람 되나니

한결음 한결음 침륜해 가든 이몸
발길을 도리켜 새목표 향해 가네
선과 진리를 따라 예수를 따라서
높은 뜻만 바라보고 달려 가나니

돌같이 굳은 마음 차디찬 마음
부서지고 녹아서 결손하며 착하고
믿음위에 참된 사랑을넘쳐 흐르니
말과 거동 단정하고 향그러움다

아! 축복과 희망 복받은 새사람
아! 영원한 생명 참길을 가노라

傳道歌

福音新聞에所請함

△복음신문의 성격이 무엇인지... △복음신문은 왜 공산주의만을...

讀書欄

「바라바」

ラーゲル・クワイ스트原著

이책은 어느 친구에게서 소개... △복음신문은 왜 공산주의만을...

의 출처를 분명히 하십시오... △복음신문은 왜 공산주의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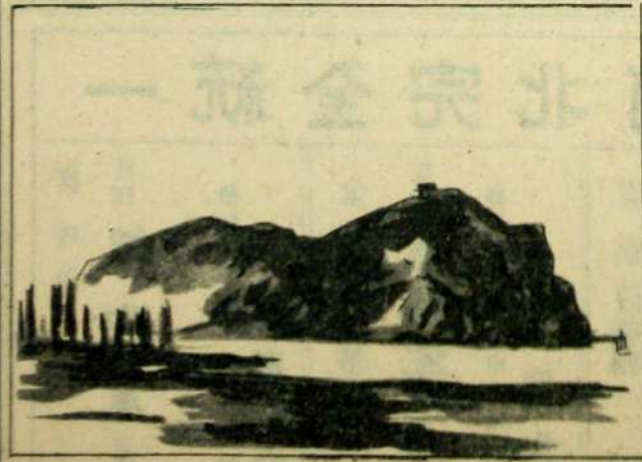
주십시오. (P) △복음신문에는... △복음신문은 왜 공산주의만을...

꾸며지는 모든 제국을... △복음신문은 왜 공산주의만을...

(圖面五歳左에서 계속)... △복음신문은 왜 공산주의만을...

최고권력을 잡든지 모로코로... △복음신문은 왜 공산주의만을...

한강을 만학에 李朝의 것이... △복음신문은 왜 공산주의만을...



(扶蘇山) 扶蘇山에 있는...

날뛰는 악마(7)
청천벽력은 불이 떨어지
서울의 여름철도 그럭저럭 지
나고 어느새 구월도 중순이
가까워진단 아직도 뜨거운 태
양은 가득이나 지치고 맥없는
서울 시민을 사정없이 내려쬐
고 있다.
「명야야 울지말아 자거라」
「.....」
「어머니 사실일까 이모가 죽
다니」
밤이 깊어가는 어느 날밤
효자동 정장노의 집에서 소
리도 낮은 울음소리가 끊임
이을락 울타리를 넘어 나왔다
「엄마 이모가 무슨 죄가 있
다고 그놈들이 그 무지막지
한놈들이 그 짐승같은놈들
이악마같은놈들이글세사
람을죽이긴왜죽여!」
「글세말이다마리아는그회
를만나지못해서그렇지이
제큰일군이될사람인데:
나는공부를못해도내가저
를공부시키누라고.....」
명애와명애의어머니고씨
부인은마주앉아서두어시간
전에마리아가서대문밖옥에
서총살을당했다는사실을
전해주는청년의이야기를다
시생각하면서이렇게애굽는
이야기를하다가고씨는목이
매어말끝을맺지못한다.
정장로의가족과고마리아의
식구도유월二十八일에종내
서울을탈출할기회를얻어버
렸다정장로만거처처럼채리
고독성으로해서한강을건
느고다른식구들은그냥남
아있었다.고마리아도피난의
길을떠나지아니하고남아
있어서앞치마를입고머리에
는수건을쓰고현고무신짝
을끌고다니면서나가지못한
교우들을찾아보고특히알른
사람을돌보고식량이아주
떨어져서굶고있는집에는
어떻게서든지보리나옥수수
를씻어서이라도구해다가
주었다.
「명애마리아오이제하나님께

서당신의사자를보내서서
우리를구해주실테이니하루
걱정 말고 좀 참고 있을시다
그동안 당하는 일은 우리의
시련으로 알고 참고 견디고
끝까지 서로서로 돌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마리아는 교우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용하게
여름 두락을 지냈다. 그렇다고
그는 직접 대한부인회에 관여
했거나 더구나 정보원의 역할
을 한 것은 아니다. 한 교회
신자로 신앙과 사랑을 가지고
절망 중에 있는 형제를 붙들고
힘을 주는 역할을 해온 것이었
다. 그는 나이 삼십이 넘었으
나 여자로서의 애교가 있고
극적 소질이 있어서 표정을 잘
하기 때문에 표면으로는 부녀동
맹의 한 사람인듯이 행세하면
서 웬만한 인민군이나 보안대
원보다는 웃으면서
「동모 참 수구하십니다」하고
정다운 말로 위로하고 대접도
하는 동안에 감쪽같이 속았다
그리다가 종내 진짜 부녀동맹간
부추에서 「암만해도 저 마리아
는 이상해!」하는 말이 돈
다는 말을 마리아 자신도 귀
에 들은 어느날 또 마리아 집
에 다니는 어떤 여학생이 와
서 「선생님 밤으로 도망해서요
저것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이렇게 간곡히 권하는 것을
마리아는 하나씩씩서 이미 경
륜이 있어서 바루 하신편데
게다가 나 혼자 도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날 밤에
형되는 고장로부인과 기도를
하고 있다가 새로 한시가 지
나서 막 잠이 들려하던 차에
「여보 여보 대문 열어」
하고 대문을 막 박차는 소
리에 두사람은 잠자 놀라서
깨었다 고씨부인이 먼저 일어
나서 문을 열까말까 하고 주
저하던 차에 어느새 파발총
맨 인민군 두사람과 정보원
한사람은 대문 안으로 들어와서
「고마리아 여기 있지 이리
나와」하면서 파발총을 내었다

統一完全南北·祈·八年解放祖國·祝

眞理의

月刊 把守軍 定價 三十圓

朴允先主幹

發行所 釜山市光復洞一街七

高麗把守軍社

金麟瑞主筆

月刊 信仰生活 七·八月合號 定價 二十圓

發行所 釜山市賣水洞一街九三

信仰生活社

安炳茂編輯

野聲 定價 三十圓

發行所 京城特別市鐘路二街

鐘路書館內

盧平久主筆

月刊 聖書研究 定價 三十圓

發行所 釜山郵便局私書函五九號

聖書研究社

金在俊主幹

月刊 십자군 定價 三十圓

發行所 釜山市南富民洞二十二番地

韓國神學大學構內

月刊 活泉 定價 三十圓

發行所

京城特別市西大門區忠正路三街三五

聖潔教會出版部